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4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영국 Liverpool항, 제2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키로 -----	2
□ 프랑스 Fos 4XL 「컨」터미널 개발사업자로 Hutchison 선정 -----	4
□ 인도 FY 2010/2011 민자유치 신규사업 확정 -----	5
□ 방글라데시 Sonadia Deep-Sea Port 개발에 중국측 관심 -----	6

□ 영국 Liverpool항, 제2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키로

○ Liverpool항(Port of Liverpool) 개요

- Irish Sea에서 불과 3km 떨어진 England 서부 Mersey강 하구에 위치한 항만으로 길이 40km의 Manchester Ship Canal(1894년 개통)을 통해 Manchester와 Liverpool항간의 화물이 운송
- Liverpool항의 처리 물동량은 3,300만톤(컨테이너 70만 TEU 포함)이며 Manchester Ship Canal을 통해 처리되는 물동량은 연간 800만톤으로서 Liverpool항과 Manchester Canal 권역의 전체 처리 물동량은 연간 4,100만톤(전체 선석수는 100여개)
- Peel Ports Group이 Liverpool항과 Manchester Ship Canal 모두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의 Mersey Docks and Harbour Company가 항만 및 운하관리의 주체



○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 Peel Ports가 운영하고 있는 Royal Seaforth Container Terminal에서 “컨”처리
- 4선석(수심 12.7m), 크레인 6기의 터미널 시설로 연간 70만 TEU를 처리
- 우리나라의 인천항과 같이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갑문식으로 운영되는 터미널
- Manchester의 Irlam Container Terminal을 연결하는 160TEU급의 바지선이 셔틀 운항



○ 제2 컨테이너 터미널 추가 건설계획

- Peel Ports는 수 년전부터 Liverpool항에 제2의 Post Panamax River Container Terminal의 추가 건설을 검토하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그동안 추진을 보류
- 820m 선석길이(수심 14.5m), 최대 7,000 TEU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한 시설규모로 총 공사비는 1억 파운드(1억 5천만불, 약 1,700억원)로 추산
- Peel Ports는 동 프로젝트를 2011년 중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준비 진행 중



○ 참고사항 : Peel Group 개요

- Manchester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그룹(1920년 설립)으로 현재 자산규모는 약 45억 파운드(68억불)
- Peel Group의 주요 사업영역

사 업 체 명	사 업 내 용
Trafford Center	쇼핑센터 소유 및 운영
Peel Ports	Clyde Port Authority, Mersey Docks and Harbour Company 소유 및 운영
Peel Airports	Liverpool John Lennon Airport, City Airport Manchester, Robin Hood Airport Doncaster Sheffield 및 Durham Tees Valley Airport 소유 및 운영
Peel Land and Property	부동산 개발 및 투자
Peel Wind Power	풍력발전 기지 건설 및 운영

자료 : Peel Group, Mersey Docks and Harbour Company, Liverpool Daily Post 2010.3.18

□ 프랑스 Fos 4XL 「컨」터미널 개발사업자로 Hutchison 선정

○ Marseille-Fos항 개요(관련 추가자료는 KMI국제물류위클리 제8호, 제32호 참조)

- Marseilles-Fos항은 Marseilles항(東港)과 Marseilles항 북서쪽 38km에 위치한 Fos-sur-Mer항 (약칭 Fos항, 西港)의 양대 항만으로 구성, Grand Port Maritime de Marseille가 항만관리주체
- 프랑스 제2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서 2009년에 전년보다 3% 증가한 876,757 TEU 처리 (2008년 847,651TEU), 현시설의 처리능력은 연간 100만 TEU



○ Fos항 컨테이너터미널 확장 현황 및 계획 : Fos XL Series

- Fos 항만당국은 "컨"터미널 확장계획(Fos XL Series)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
- 이 중 진도가 가장 빠른 Fos 2XL은 2011년 상반기에 개장 예정
 - 선석길이 984m, 96ha(96만m², 약 29만평), 연간 처리능력 150만 TEU
 - Terminal A는 Port Synergy사가, Terminal B는 MSC사가 운영사로 선정
- 금번 Hutchison이 사업자로 선정된 Fos 4XL 프로젝트는 연간 100만 TEU 처리가 가능한 1,200m 선석 및 야드 75ha를 건설하는 공사(총사업비 6억 유로)
 - 공사는 물동량 증가추이에 따라 착수하되 2017/2018년 까지는 개장 예정



자료 : Grand Port Maritime de Marseille, CI-Online 2010.3.23, Lloyd's List 2010.3.19

□ 인도 FY 2010/2011 민자유치 신규사업 확정

- 인도 정부는 최근 FY 2010/2011(2010.4~2011.3) 중 총 129억 6천만 루피(약 3,3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개발을 추진(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하는 대상사업을 확정
 - 금번 FY 기간 중에 FY 2009/2010 기간 중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14개 사업까지 포함하여 모두 23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인도 해운부는 23개 사업의 종료시 인도 12개 Major Ports의 시설능력은 현재보다 약 2억 4천만톤 증가한 8억 1,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FY 2010/2011 주요 민자유치 사업 발주계획(1루피 = 약25원)

항 만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억루피)
Mormugao항	Vasco Bay 2선석 건설	12.0
	벌크터미널 건설	72.1
Kolkata항	Upstream 2 Jetties	9.9
	Downstream Oil Jetty	4.7
Tuticorin항	저수심 전용 선석 건설	5.0
	건설자재 선석 기계화	2.0
Cochin항	다목적 액화부두 건설	23.9

- 인도의 Major Ports 현황(단위 : 백만톤)

	항 만 명	시설능력	'09 물동량
①	Kolkata Haldia	62.46	54.22
②	Paradip	71.00	46.41
③	Visakhapatnam	62.23	63.91
④	Ennore	16.00	11.50
⑤	Chennai	55.75	57.49
⑥	Tuticorin	22.81	22.01
⑦	Cochin	28.37	15.23
⑧	New Mangalore	44.20	36.69
⑨	Mormugao	33.05	41.68
⑩	Mumbai	43.70	51.88
⑪	Jawaharlal Nehru	57.96	57.29
⑫	Kandla	77.24	72.22
	Total	574.77	53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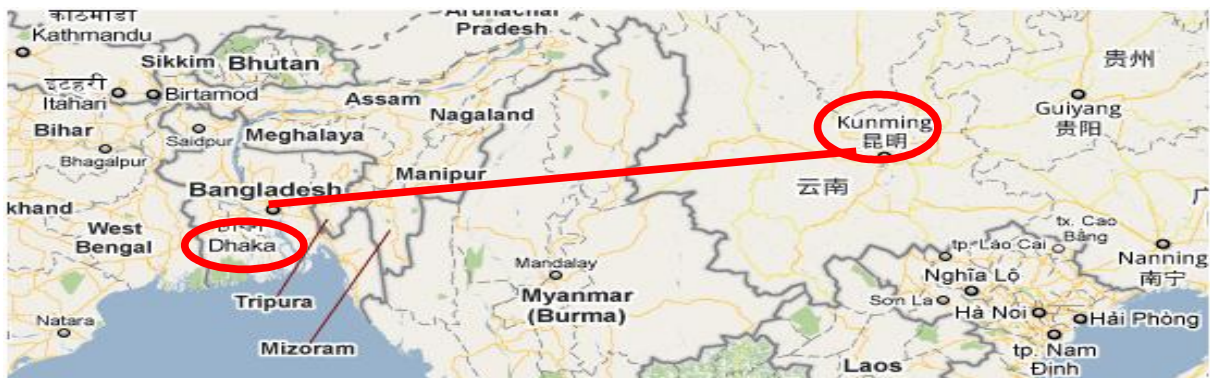
자료 : Shipping Ministry India, Indian Express 2010.3.23

□ 방글라데시 Sonadia Deep-Sea Port 개발에 중국측 관심

- 방글라데시는 최대항만인 Chittagong항의 수심이 9m에 불과, 컨테이너 모선의 기항이 불가능하여 1,200마일이나 떨어진 싱가포르항을 환적항으로 이용함으로써 물류비 증가
 - Sonadia섬은 Chittagong항(2009년 1,161,469 TEU 처리)에서 남쪽으로 8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수심이 14~16m로 천혜의 항만여건을 구비
 - 총사업비 1,500억 타카(약 19억불, 2조 4천억원), 연간 처리능력 300만 TEU
 - 9선석, 총 선석길이 2,700m, 부지면적 220ha(220만㎡, 약 66만평) 조성 예정
 - 2015년 1단계 개장 목표이며 1단계 이후 물동량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발 계획
 - 항만당국은 1단계 개장시 연간 100억 타카(약 1,600억원)의 항만수입 예상



- 방글라데시 Dipu Moni 외무장관은 Sheikh Hasina 총리의 중국방문(2010.3.17~3.21)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원자바오(Wen Jiabao, 温家宝) 총리와 Sonadia Deep-Sea Port 개발에 중국 측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언급
 - 중국은 중국대륙 서남부의 윈난성(云南省) 쿤밍시(昆明市)와 방글라데시의 수도 Dhaka를 잇는 철도망을 건설하여 향후 건설될 Sonadia Deep-Sea Port를 이용하여 물류비 절감 가능



자료 : The New Nation 2010.4.1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